

2026년  
고2  
3월 학평

## 2026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호애오잠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 작품에서 부구공과 선문자의 대화를 통해서 타인의 평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내용이 아주 논리적이었어요.

아주 잘 읽었네! 사람들이 개인적인 좋고 싫음에 따라 맹목적으로 내리는 평가에는 흔들릴 필요가 없지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군자'의 평가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자기 성찰의 태도가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지.



그런데 저는 모의고사 38번 문제의 4번 선지가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소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 군자라면 근심하게 된다고 한 구절인데, 왜 타인의 평가에 얽매는 것을 지혜롭지 않게 여긴다는 감상이 틀린 건가요?

부구공이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근심한다고 했는지 본문의 논리를 꼼꼼히 다시 생각해보렴. 아무나 하는 칭찬이나 비난에 휩쓸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지?



네, 맞아요. 남들이 자신들의 호불호에 따라 나를 소인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휩쓸려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지. 하지만 시비가 분명한 '군자'가 나를 소인이라고 평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지?



아! 그때는 내가 정말 소인배와 가깝게 행동했다는 뜻일 수 있으니 당연히 근심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바로 그거란다! 진짜 군자가 나를 비판해서 근심하는 것은 맹목적인 타인의 평가에 어리석게 얽매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타인의 올바른 평가를 가려서 받아들이는 지혜롭고 바람직한 행동인 거지.





혁, 걸보기엔 남의 말에 신경 써서 근심하는 상황이니까 얽매인다는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 군자의 평가는 자신을 성찰하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는 맥락을 놓쳤네요. 36번 문제에서 선문자가 부구공의 말을 듣고 “내가 스승을 얻었소이다”라며 기뻐한 이유도 이제 완벽히 알겠어요!

좋아! 문답법을 통해 타인의 객관적인 평가를 가려서 수용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리고 군자와 소인의 대조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주장의 타당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2026년  
고2  
3월 학평

## 2026년 시행 고2 3월 학평 국어 문학 | 호애오잠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부구공이 말했다.

“그렇소. [ 내가 지난번 밖에서 노닐 적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뱀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뱀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근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용이라고 부르기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가 용이 아닌 줄을 알고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 [ ] : 타인의 근거 없는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주체적인 태도. 이 글에 드러난 글쓴이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구분과 근심과 기쁨의 갈래에 대해 그 단서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또 무엇을 기뻐하고 근심하겠소. 우선 내 말을 들어 보시오. 지금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해도 내가 군자라고 결정할 수는 없고, 남들이 나를 소인이라고 해도 내가 소인이라고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오.(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본질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인식)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기뻐할지 근심할지도 결정할 수 없는 법이니, 그렇다면 내가 어찌 근심하거나 기뻐할 것이 있겠소.(설의적 표현을 통한 화자의 단호한 인식 강조) 또 남들이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좋아해서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여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겠소. 나를 좋아하는 이가 나를 군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좋아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군자라 보장할 수 있겠소. 나를 미워하는 이가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나를 미워해서이니 그렇다면 어찌 내가 소인이라 보장할 수 있겠소. 사람들에게는 좋음과 싫음이 있어서 시비(是非)를 서로 다투는데, 내가 또 거기에 휩쓸려 근심하거나 기뻐한다면 지혜롭지 못한 짓이오.(개인적인 호애에 바탕을 둔 주관적 평가에 연연하지 않음.) 그러므로 근심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것이오.”

이에 선문자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정말이지 근심과 기쁨이 없다는 말이오?”

부구공이 대답했다.

“있소.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소.(선한 이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악한 이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기뻐함. 글쓴이가 근심하거나 기뻐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여기에 있을 따름이오. 그리고 나를 군자라고 하는 이가 정말 소인이라면 내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나를 소인이라고 하는 이가 정말 군자라면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악한 이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거나, 선한 이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것을 근심함.) 내가 근심하는 것은 역시 여기에 있을 따름이오. 어째서 그러한가. 군자는 좋음과 싫음의 판단이 공정하고 시비가 분명하오. 따라서 내가 군자인지 소인인지는 그가 나를 허여(許與)하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내가 어찌 그가 허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허여하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소.(공정한 판단력을 가진 군자의 평가를 기쁨과 근심의 참된 기준으로 삼음. 글쓴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중략)

기뻐할 만하고 근심할 만한 것은 나 자신에게 있을 뿐이니, 남들이 어떻게 간여할 수 있겠소.(기쁨과 근심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있음.) 그렇긴 하지만 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불선(不善)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기뻐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고, 불선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근심할 만한 실상이 있다는 것을 밖에서 알 수 있을 것이오. 근본은 나에게 있지만 실상을 아는 것은 남에게 있으니, 역시 가릴 바와 힘쓸 바를 알지 않아서야 되겠소.(내면의 수양을 기본으로 삼되, 타인의 올바른 평가를 거울 삼아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함.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선문자가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하여 말했다.

**“예전에 내가 선생을 만나 보지 못했을 적에는 나만 한 이가 없을 것이라 여겼는데, 지금 선생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스승을 얻었소이다.”**(부구공의 논리적인 말을 듣고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치며 깨달음을 얻은 선문자의 모습)

- 박세당, 「효애오잠」

### 핵심 정리

- 갈래: 고전 수필(한문 수필)
- 성격: 교훈적, 사색적, 철학적, 논리적
- 주제: 타인의 평가를 수용하는 올바른 태도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
- 특징
  - 묻고 답하는 대화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쓰이의 깨달음과 주장을 전개함.
  - 대조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강화함.
  -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확고한 가치관을 강조함.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문신 박세당이 지은 한문 수필로,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수양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논하고 있는 글이다. 작가는 ‘부구공’과 ‘선문자’라는 두 인물의 문답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낸다.

부구공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호오(好惡)에 따라 함부로 내리는 평가에는 기뻐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대신, 시비가 분명한 ‘군자’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기쁨과 근심의 참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선한 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악한 자가 자신을 미워한다면 기뻐할 일이나, 악한 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선한 자가 자신을 미워한다면 스스로의 행실을 근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글은 외부의 맹목적인 평가에 연연하기보다는, 자기 내면의 수양을 근본으로 삼고 훌륭한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자세가 중요함을 교훈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서지정보

저자 정빛나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9739-0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6.04.06.

가격 1,500원

값 1500 원



ISBN 979-11-377-9739-0 (PDF)